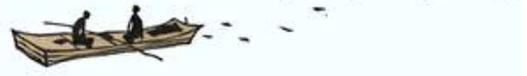


무한(無限)한 우주의 배인 “환주(環舟)”는
일정한 방향으로 순환하며 돌아가는데,
그 배 안에(舟中) 타고 있는 사람이
길게 누워만 있으면(長臥)



總而論之則 <중략> 曰「舟中臥則環舟去而不知其方者也니라

-----{천도교經/성사법설_5.각세진경 517면}-----

우주를 이루는 근본인 본체(本體)인 ‘리(理)’의 이치(理致)와,
그로부터 나온 현상(現象)인 ‘기(氣)’를 ‘음양이기(陰陽二氣)’로 논할 것 같으면(論之則),

‘기(氣)’는 우주를 이루는 근본 이치를 품고(抱理)있고,
우주를 이루는 근본인 ‘이치(理)’인 ‘리(理)’는,
기(氣)를 선천적으로 부여받아 지니고 있음이니(賦氣而)

서로 꼭 붙어서 의지(依支)하려고 애써 집착(執着)하지도 않고(無依),
그렇다고 서로 떨어져서 고립무의(孤立無依)처럼 외로이 홀로 있지도 않으면서,
끝이 없이 무한한 ‘무한환(無限環)’의 일환(一環)으로, 사물을 밝혀 확실하게 입증할 수가
없는(無立而),
성쇠가 순환(循環)하는 ‘환(環)’의 경지인 ‘자연환경(環境)’이 바로 귀신(鬼神)의 자취요 모습
이니라(也).」

이같이 「음양(陰陽)이기(理氣)는 서로 의지하려고 집착하지도 않는 ‘무의(無依)’요,
그렇다고 해서 외로이 각각 홀로 떨어져 있는 ‘무립(無立)’도 아니면서,
끊임없이 돌고 도는 순환(循環)을 하며 변화하는 ‘무한한 환(環)’의 이치인즉(環則),

어찌 방위(方位)를 알 수가 있어(有), 나아갈 방향(方向)을 분명히 하고,
그 목표한 방향을 변함이 없이(方而不變者)하라고 함은
그것이 어찌하여 그렇다고 (동덕 제군들께서는) 생각하오(何也)?」

답하여 말씀하시기를(曰),

「무시무종이요, 무극이요, 무한(無限)한 우주의 배인 “환주(環舟)”는 일정한 방향으로 순
환하며 돌아가는데(而去), 그 배 안에(舟中) 타고 있는 사람이 길게 누워만 있으면(長臥)

가면 갈수록(去) 무거무래(無去無來)로 윤회(輪廻)하는 상주 불변의 진리 속에서
동서남북 방위를 분간치 못하게 되고, 나 자신이 어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어느 목표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지, 그 방향감각이란 것(其方者)을 거의 다 잃어버리고
알지 못해 방황하게 되기 때문이니라(去而不知也).

<수도하며, 함께 공부하는 송탄교구 圓菴 이승민의 句句字字 살피내어 如是我解>